

## 식민주의의 역사

— Index of Possessions and Colonies

데이터베이스의 지배 연수를 통한 재고찰, 1000~2015

선재원\*

### [초 록]

본고의 목적은 약 천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전 세계에 걸친 지배 연수를 확정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고 분석하여 최근의 경제사연구를 비판적으로 계승하는 것이다. 지배 연수란 각 중주국에 의한 각 지배지역의 지배기간을 합산한 연수이다.

Etmad (2007)은 면적과 인구를 기준으로 산업혁명 발생 이후 지배지역이 확대되었던 18세기부터 지배지역이 감소하기 시작한 19세기를 거쳐 20세기까지의 지배지역 변화과정을 매우 명쾌하게 분석했다. 그렇지만 산업혁명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연속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본고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배 연수를 기준으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연속적인 시계열데이터를 제시하고 각 시대의 특징을 설명했다.

---

\* 평택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교수

주제어: 식민주의, 데이터베이스, 지배 연수, 지배지역, 식민, 탈식민, 대항해  
Colonialism, Database, Ruled Years, Ruled Area, Colonization, Decolonization,  
Age of Exploration

대항해 이전 시대(1000-1487)의 최대 종주국인 이탈리아가 후반기에 침체하자 영국이 추격을 시작했다. 대항해 시대(1488-1689)에는 각 종주국이 균용할거 하는 가운데 신대륙이 발견되어 지배지역 획득 경쟁이 격화되었다. 영국은 북미지역을 상실했으나 아프리카 및 아시아지역의 새로운 지배지역을 최고 속도로 증가시킨 결과 독보적인 종주국이 되었다(1690-1918). 프랑스는 나폴레옹의 등장으로 지배지역을 확대했으나 퇴위 이후 급감했다. 이후 프랑스는 영국에 버금가는 지배지역 증가율로 제2위의 종주국이 되었다.

탈식민 시대(1919-1992)에는 제1차 대전 이후 대부분의 종주국 지배지역이 감소했다가 제2차 대전기에 일시적으로 증가했다. 제2차 대전 이후에 총 지배지역수는 급격히 감소했다. 감소율이 적었던 프랑스는 지배지역 수에서 영국과 비슷하게 되었다.

탈식민의 파급효과는 제2차 대전 후의 사상초유의 인구증가와 일인당 GDP 증가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탈식민 이후 피지배지역 주민들의 자유로운 개인행위가 급격히 확대한 사실이 있었다. 한편 2015년 현재 잔존 지배지역은 탈식민 정체의 시대(1993-2015)를 거쳐 오랜 기간 지배당해왔지만 탈식민의 역사를 살펴보면 앞으로 탈식민할 가능성이 있다.

본고는 이상과 같이 지배 연수라는 척도를 사용하였기에 초장기적 관점에서 이제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대항해 이전과 이후의 시기를 비교할 수 있었고, 식민시대와 탈식민시대를 초장기적 관점에서 비교할 수 있었다. 본고의 결론은 첫째, 식민주의의 역사를 시대별로 비교하면 지배 연수와 인구 및 GDP는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둘째, 피지배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생활수준의 전환점은 산업혁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 제2차 대전 이후라는 것이다.

## 1. 머리말

본고의 목적은 천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지역 간 지배 연수를 확정하여 기존의 식민주의 연구를 재고찰하고 최근의 경제사연구를 비판적으로 계승하는 것이다. 본고에서 식민주의란 지역 간 지배관계가 형태를 바꾸어가면서 지속되는 상태를 말한다. 지배 연수란 각 종주국에 의한 각 지배지역의 지배기간을 합산한 연수를 말한다.

Said (1979)<sup>1)</sup>는 식민주의의 역사를 지배자에 의한 역사가 아닌 피지배자의 관점에서 잘 정리하였다. 이후에도 피지배자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연구는 계속하여 축적되었다(内田じゅん·宣在源 2001).<sup>2)</sup> 이러한 피지배자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들은 지배 연수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식민주의 역사를 재고찰할 수 있다. Etmad (2007)<sup>3)</sup>는 면적과 인구를 기준으로 산업혁명 발생 이후 지배지역이 확대되었던 18세기부터 감소한 20세기까지의 지배지역 변화과정을 매우 명쾌하게 분석하였다. 다만 각 시기의 지배지역의 면적과 인구에 관한 기록은 연속적이지 않기에 동일한 기준에 의한 일관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본고의 첫째 목적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지배 연수를 기준으로 초장기적으로 일관된 시계열데이터를 제시하는 것이다.

최근 경제사연구의 괄목할만한 성과로 주목받고 있는 클라크(Clark 2007)<sup>4)</sup>는 인류의 생활수준이 오랜 기간 크게 향상되지 않았는데 산업혁명

1) Said, Edward W. (1979), *Orientalism*, New York: Pantheon Books (박홍규 역(2002),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2) 内田じゅん·宣在源(2001), 「アメリカにおける西洋植民地研究：新しい視点の開拓」, 『日本植民地研究』, 제13호, pp. 57-73.

3) Etmad, Bouda (2007), *Possessing the World: Taking the Measurements of Colonisation from the Eighteenth to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Berghahn Books (Andrene Everson 영문번역(2000), 원저: Etmad, Bouda, *La possession du monde: Poids et mesures de la colonisation*, Brussels: Editions Complexes).

의 효과가 파급되는 1800년경부터 크게 향상되었고, 그와 동시에 소득격차도 확대되었다고 한다. 그의 연구는 다양한 연구분야와 자료를 넘나들며 분석하여 산업혁명의 영향을 생활수준 향상의 전환점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소득격차의 기원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그렇지만 두 가지 의문이 남는다. 첫째, 생활수준 향상의 기준을 실질임금, 영양분, 신장이 아닌 ‘자유로운 개인행위가 가능한 사회제도의 형성’<sup>5)</sup>으로 설정하더라도 생활수준이 1800년경에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할 수 있을까? 특히 피지배지역의 주민들에게도 그럴 것인가? 둘째, 제2차 대전 후 사상 초유의 전 세계적인 경제발전을 산업혁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제2차 대전 후의 전 세계적인 경제발전을 산업혁명의 연장선으로 간주하는 연구는 세계화의 중단 전후 즉 제1차 대전 전과 제2차 대전 후에 경제성장이 실현되었다고 하는 연구(O'Rourke and Williamson 1999)<sup>6)</sup>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2차 대전 후에 전쟁이 종료되어 안정적인 시장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정치적 사회적 지배에서 벗어나 획기적으로 자유롭게 된 다수가 시장거래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상의 두 가지 의문은 최근 한국을 사례로 제2차 대전 이전에 산업혁명이 시작되어 그 연장선상에서 제2차 대전 후의 경제성장을 설명하고 있는 차명수(2014)<sup>7)</sup>에게도 해당된다. 본고의 두 번째 목적은 지배지역의 장기적 변화 속에서의 자유로운 시장거래자의 확대라는 관

4) Clark, Gregory (2007), *A Farewell to Alms: A Brief Economic History of the World*,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이은주 옮김(2009), 『멜서스, 산업혁명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신세계』, 한스미디어).

5) Sen, Amartya (1999), *Development as Freedo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박우희 옮김(2001), 『자유로서의 발전』, 세종연구원).

6) O'Rourke, Kevin H. and Jeffrey G. Williamson (1999), *Globalization and History: The Evolution of a Nineteenth-Century Atlantic Economy*, Cambridge, MA: The MIT Press.

7) 차명수(2014), 『기아와 기적의 기원: 한국경제사, 1700-2010』, 해남.

점에서 실질임금, 영양분, 신장을 기준으로 하는 생활수준의 분석에 기초한 경제사연구를 비판적으로 계승하려는 것이다.

## 2. 데이터베이스의 소개

### 2.1. 자료

본고의 데이터베이스는 각 지배지역의 오랜 기간의 역사를 상세히 수록하고 있는 온라인 백과사전(<http://www.worldstatesmen.org/Colonies.html>)을 이용하여 작성되었다. 이 백과사전은 대항해 시대 이전에 덴마크가 Halland를 800년부터 1645년까지 지배했던 역사와 더불어, 1991년에 소련연방이 해체되어 러시아의 지배지역이 감소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1997년에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어 영국의 지배지역이 감소했으며, 2014년부터 러시아가 크림미아(Crimea)를 지배하기 시작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백과사전의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본고의 데이터베이스는 대항해 시대 이전부터 최근까지의 지역 간 지배역사를 일관된 기준으로 장기간에 걸쳐 고찰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단점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최대의 단점은 각 지배지역의 가중치가 설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 몽골의 지배지역에 관한 정보가 결여되어 있고 중국의 지배지역에 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는 등 동양의 중주국에 의한 지배의 역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 2.2. 작성방법

데이터베이스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입력하여 작성되었다.

첫째, 지배시기가 겹치는 경우에는 앞의 연을 삭제하고 뒤의 연부터

입력하여 이중계산을 방지하였다. 예를 들면 알자스(Alsace)의 경우, 프랑스가 1678-1870, 1918-1940, 1944-현재까지 지배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독일의 지배시기는 1870-1918, 1940-1945로 기록되어있다. 이런 경우 데이터베이스에는 1678-1869 프랑스 지배, 1870-1917 독일 지배, 1918-1939 프랑스 지배, 1940-1943 독일 지배, 1944-현재 프랑스 지배로 입력되어 있다. 또 하나의 예로는 오키나와(Okinawa and Ryukyu Islands)의 경우, 일본이 1872-1945, 1972-현재까지 지배하고 있다고 기록되어있고, 미국이 1945-1972 기간에 지배했다고 기록되어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1872-1944 일본지배, 1945-1971 미국지배, 1972-현재 일본지배로 입력되어있다.

둘째, 하나의 지역이 두 개 이상의 종주국에 의해 지배된 것으로 기록되었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장기간에 걸쳐 지배한 종주국에 의한 지배기간만을 입력하여 이중계산을 방지하였다. 예를 들면 올란드제도(Aland Islands)의 경우, 스웨덴이 1180-1809, 1918의 기간에 지배했다고 기록되어있고, 러시아(Russia/Soviet Union)가 1714-21, 1742-43, 1808-1917에 지배했다고 기록되어있다. 즉 스웨덴이 지배한 1180-1890 기간에 러시아도 1714-21, 1742-43 기간에 지배한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이 경우에는 후자의 러시아 지배기간을 입력하지 않고 스웨덴의 지배기간만을 입력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본 데이터베이스에는 제2차 대전 중의 일시적인 지배는 지배기간으로 간주되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버마(Burma)가 1885-1948 기간에 영국에 의해 지배되었고 일본에 의해서도 1942-1945 기간에 지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1885-1948 영국지배로 입력하였다. 따라서 본 데이터베이스에는 제2차 대전 중에 지배지역을 확대했던 일본의 지배가 과소평가되고 있다. 레바논(Lebanon)도 1516-1918 기간에 오스만/터키(Ottoman/Turkey), 1832-1840 기간에 이집트, 1918-1946 기간에 프랑스, 1941-1946 기간에 영국에 의해 지배되었다고 기록되어있다. 이 경우는 이집트 지배기간을 입력하지 않음과 동시에 영국의 지배

기간도 입력하지 않아 결국 오스만/터키에 의해 1516-1917 기간 동안 그리고 프랑스에 의해 1918-1946 기간 동안에 지배되었다고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어있다.

셋째, 하나의 지역이 복수 또는 분할되어 지배된 것으로 기록되었을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도록 입력하여 이중계산을 방지하였다. 예를 들면 미국 플로리다(Florida)의 경우, 플로리다 전체지역을 1565-1763, 1783-1821에 스페인이 지배했고, 1763-1783에 영국이 지배했다고 기록되어있다. 또한 플로리다 캐롤라인 요새(Fort Caroline)는 1564-1565에 프랑스가 지배했고, 플로리다 서부는 1565-1763, 1763-1781에 영국이 지배했고, 플로리다 동부는 1565-1763, 1781-1821에 스페인이 지배했다고 기록되어있다. 이런 경우에 플로리다를 하나의 지역으로 간주하여, 지배된 기간을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했다. 즉 1564년에는 프랑스, 1565-1763에는 스페인, 1763-1782에는 영국이 지배한 것으로 입력하였다.

넷째, 제1차 대전 후의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과 제2차 대전 후의 국제연합(United Nations) 그리고 제2차 대전 후 분할 점령한 경우에는 지배지역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즉 국제연맹에 의해 관리된 21개 지역과 국제연합에 의해 관리된 19개 지역은 본 데이터베이스에 피지배지역으로 포함되어있지 않다. 그리고 제2차 대전 후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에 의해 점령된 오스트리아, 독일은 본 데이터베이스에 그 어느 나라에 의한 지배로도 입력되어있지 않다. 다만 일본의 경우는 1945-1950 기간에 미국이 단독 점령한 것으로 기록되어있기에 본 데이터베이스에는 그 기간 동안 일본이 미국에 의해 지배당한 것으로 입력되어있다.

### 2.3. 분석시기와 유의점

본 논문에서는 이상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된 1,325개의 케이스를 입력하여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이하, IPC-DB)를 중심으로 식민주의의

역사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원자료에는 800년부터의 지배역사가 수록되어있지만 800년부터 1000년까지의 지배지역 수가 적고 그 변화가 거의 없다. 현재로서는 그 의미에 대해 파악하기 어렵기에 분석시기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분석시기는 1000년부터 원자료가 수록된 웹사이트에 저자가 접속한 시점(2016년 1월 31일) 직전의 해인 2015년까지로 한정하기로 한다.

본 데이터베이스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지역의 명칭과 적용범위가 변화되어간 점을 인식하고는 있다. 그렇지만 지배지역을 간결하게 표기하기 위하여 오늘날 통용되는 지명을 사용했다. 이러한 지침은 Burbank and Cooper (2010)<sup>8)</sup>를 참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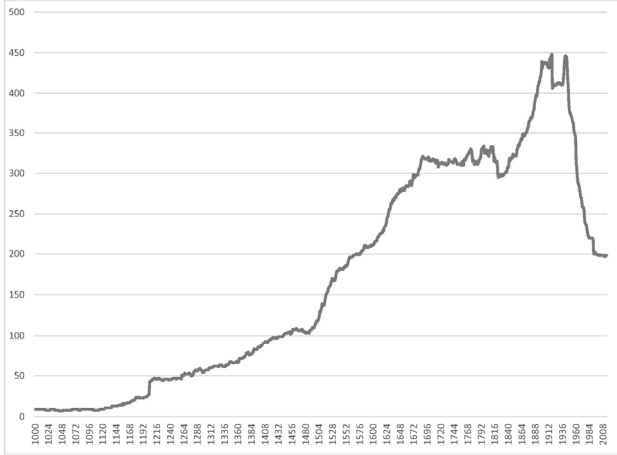
### 3. 데이터베이스의 검증

지배지역의 수는 1000년부터 아메리카대륙 발견직전인 1487년까지 점증했고, 1488년부터 1689년까지 급증했다([그림 1]). 한편 1690년부터 1815년까지 지배지역 수가 정체했다가 이후 감소하고 1835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했다. 지배지역 수는 제1차 대전 직후인 1919년부터 감소했다가 제2차 대전기에 상승한 뒤에 1946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했다. 이러한 본 데이터베이스의 지배지역수에 관한 전체적인 동향은 기존의 연구와 정합적인가? 대항해시대 이후부터 제2차 대전 이전까지의 변화에 한정된 연구이지만, 필자가 조사한 연구 중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연구결과라고 판단한 Etemad(2007)와 비교하며 검증하고자 한다.<sup>9)</sup>

---

8) Burbank, Jane and Frederick Cooper (2010), *Empires in World History: Power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이재만 옮김(2016), 『세계제국사: 고대 로마에서 G2시대까지 제국은 어떻게 세계를 상상해왔는가』, 책과함께).





출전: Index of Possessions and Colonies.  
 [그림 1] 지배지역 수의 장기추이(1000-2015).

Etemad (2007)는 면적과 인구를 기준으로 세계 지배지역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그에 의하면 1760년부터 1830년까지의 지배지역이 1/3로 감소했지만 지배인구는 6배나 증가했다고 한다([표 1]). 이는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독립에 의해 지배면적 비율이 급감했지만, 인구밀도가 높은 인도 등의 지배지역이 확대된 결과였다. 1880년에는 지배지역의 면적이 1760년 수준인 전 세계 면적의 18%로 회복되었고 지배지역의 인구가 1830년 전 세계 인구의 18%에서 22%로 증가했다. 1913년에는 면적과 인구가 각각 39%, 31%, 1938년에는 각각 42%, 32%로 증가했다. 본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지배지역 수가 1760년에 312지역, 1830년에 300지역, 1880년에 367지역, 1913년에 430지역, 1938년에 414지역이었다. 이상의 절대치 비교를 연간 증감률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상승과 하락의 경향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2]). 1830-1880과 1880-1913의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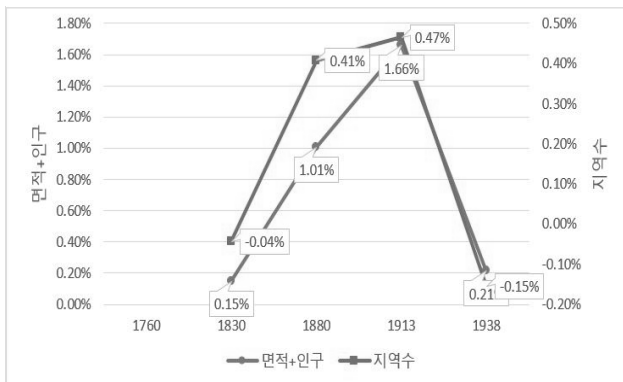
9) Etemad, Bouda, *Possessing the World: Taking the Measurements of Colonisation from the Eighteenth to the Twentieth Century*, 171.

[표 1] 전 세계 지배면적비중 및 지배인구비중과 지배지역수의 추이

연도	면적(%)	인구(%)	합계	지역수
1760	18	3	10.5	312
1830	6	18	12.0	300
1880	18	22	20.0	367
1913	39	31	35.0	430
1938	42	32	37.0	414

출전: Etamad, Bouda, *Possessing the World: Taking the Measurements of Colonisation from the Eighteenth to the Twentieth Century*, 2007: 171; Index of Possessions and Colon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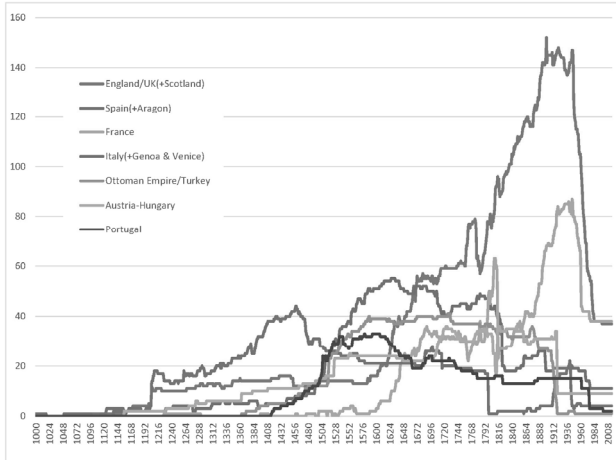
비고: 전 세계 지배면적 및 전 세계 지배인구는 서유럽, 미국, 일본의 지배지역을 계산한 것이나 전 세계 지배지역수는 중국의 일부 지배지역까지도 포함되어 있음.



출전: [표 1]과 같음.

[그림 2] 전 세계 지배면적비중 및 지배인구비중과 지배지역수의 증감률 추이.

감률 기울기가 다른 이유는 영국과 프랑스가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지배지역을 확대해나간 반면 그 이외의 중주국, 즉 스페인과 오스만 터키가 다수의 지배지역을 상실했기 때문이었다(그림 3).



출전: Index of Possessions and Colonies.  
 [그림 3] 주요 중주국의 지배지역 수 추이(1000-2015).

따라서 본 데이터베이스는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에 걸쳐 면적과 인구에 기준하여 지배지역의 변화를 분석한 Etemad (2007)보다 정치하지 못하지만, Etemad (2007)가 제시하지 못한 10세기부터 현재까지의 변화를 연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 4. 식민의 시대

##### 4.1. 이탈리아의 부상과 침체: 1000-1487

대항해 시대 이전 시기는 그 이후 시기와는 달리 지배지역의 절대 수가 적었고 증가율도 더디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1204년에는 지배지역의 수가 급증하게 된다([그림 1], [그림 3]).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

나라가 이탈리아였다. 이 시기 전체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탈리아와 영국의 지배지역 수가 11세기 말까지는 같았지만, 12세기부터 격차가 생기기 시작하여 12세기 후반 이후에는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 그 격차는 계속하여 확대되어 1457년에 영국의 지배지역은 12개 지역으로 정체가 계속된 반면 이탈리아의 지배지역은 최대 43개 지역으로 증가하여 최고조에 달했다. 이 시기에 북유럽의 각 지역이 이탈리아와 영국에 버금가는 않았지만 주변의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점이 특이할 만하다. 즉 1204년에 덴마크가 6개 지역, 스웨덴이 3개 지역, 노르웨이가 5개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다(IPC-DB).

다음은 지배 연수를 기준으로 이 시기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표 2]). 지배 연수는 얼마나 오랜 기간 얼마나 다수의 지역을 지배했는가에 따라 그 크기가 좌우된다. 이 시기 이탈리아의 지배 연수는 7,449년으로 가장 많으며, 영국이 3,839년, 덴마크가 3,078년, 오스트리아-헝가리가 2,138년, 노르웨이가 2,024년, 스페인이 1,515년, 스웨덴이 1,005년, 오스만/터키가 657년, 포르투갈이 430년이였다. 지배 연수를 기준으로 이 시기의 각 지역 간의 지배상황을 살펴보면, 이 시기의 압도적인 지배자는 이탈리아였고 영국은 아직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이 시기의 또 하나의 특징은 북유럽 각 지역 즉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영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스페인에 버금가는 지배력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항해 기술이 발전하기 이전의 약 5세기 동안은 이탈리아를 선두로 영국이 추격하는 형태로 중주국들이 주변의 지역을 지배하는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북유럽의 지배력도 이탈리아와 영국에 크게 뒤쳐지는 수준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대항해 시대 이전 시기의 중주국들은 인접지역의 지배를 유지확대하며 대항해 시대 이후의 급격한 지배지역의 확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표 2] 시기별 중주국의 지배 연수(단위: 년)

	1000-1487	1488-1689	1690-1831	1832-1918	1919-1944	1945-1992	1993-2015	계
England/ UK (+Scotland)	3,839	4,910	9,732	10,797	3,700	3,719	894	37,591
Spain (+Aragon)	1,515	8,473	6,083	1,836	499	722	264	19,392
France	94	1,789	4,743	4,176	2,166	2,451	912	16,331
Italy (+Genoa & Venice)	7,449	4,680	2,270	302	442	193	96	15,432
Ottoman Empire/ Turkey	657	6,529	5,290	2,495	32	52	24	15,079
Austria-Hungary	2,138	4,387	4,407	2,785	234	423	216	14,590
Portugal	430	5,298	2,608	1,205	390	454	56	10,441
Denmark	3,078	1,968	1,588	550	124	168	72	7,548
Netherlands (+Holland)	0	1,614	2,632	999	260	383	163	6,051
Prussia Germany	149	400	1,180	1,742	475	510	264	4,720
Sweden	1,005	1,135	1,361	557	130	235	120	4,543
Russia/ Soviet Union	0	149	801	1,690	417	1,129	192	4,378
United States	0	0	1	883	654	1,260	439	3,237
Persia/Iran	0	1,275	1,012	364	130	276	168	3,225
Norway	2,024	314	0	17	104	235	120	2,814
China	0	158	1,179	548	40	240	144	2,309
New Zealand	0	0	0	459	275	488	240	1,462
Australia	0	0	0	104	234	554	264	1,156
Japan	0	0	0	278	348	73	72	771
Egypt	394	56	29	167	26	32	0	704
Belgium	0	0	0	69	174	180	48	471
계	22,772	43,135	44,916	32,023	10,854	13,777	4,768	172,245
연평균	46.7	213.5	311.9	376.7	417.5	287.0	207.3	169.5

출전: Index of Possessions and Colonies.

#### 4.2. 군용할거와 영국의 대두: 1488-1689

이른바 대항해 시대라고 불리는 이 시기는 이탈리아의 지배력이 침체하는 가운데 복수의 중주국, 즉 오스만/터키, 오스트리아-헝가리, 스페인, 포르투갈이 경쟁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한 시기였다(그림 3). 뒤늦게 경

쟁에 참여한 영국은 정제하다가 이 시대 후반부에 지배력을 급격히 확대시켰다. 한편 프랑스는 이상의 중주국을 뒤따르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 시의 시작점인 1488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면, 이탈리아의 지배 지역이 30개 지역으로 대항해 이전 시대에 이어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오스트리아-헝가리가 13개 지역, 영국이 12개 지역, 포르투갈이 12개 지역, 덴마크가 10개 지역으로 그 뒤를 이었다(IPC-DB). 이 시기의 마지막 해인 1689년에는 이러한 상황이 바뀌어 영국이 55개 지역을 지배하여 처음으로 세계 최고의 지배력을 갖게 되었다. 한편 스페인은 51개 지역으로 영국에게 최고의 지위는 내주었지만 2위를 유지했다. 오스만/터키가 40개 지역, 그리고 프랑스가 35개 지역을 지배하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탈리아가 26개 지역, 오스트리아-헝가리, 포르투갈, 네덜란드가 23개 지역, 스웨덴이 14개 지역, 덴마크가 9개 지역에서 여전히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영국이 최고의 지배력을 갖게 되는 결정적 계기는 이 시기의 전 후반기를 나누는 1588년에 발생했다. 스페인이 무적함대를 이끌고 영국과 전투를 벌였으나 패배하여 지배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이후 그 지배력의 균형이 바로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32년이 경과하여 지배력 균형에 변화가 발생했다. 즉 1620년에 영국의 지배지역이 22개 지역으로 증가하여 21개 지역을 지배했던 이탈리아를 넘어서게 되었다. 불과 3년 뒤인 1623년에는 영국이 25개 지역을 지배하게 되어 오스트리아-헝가리의 24개 지배지역을 넘어섰다. 1632년에는 영국이 38개 지역을 지배하게 되어 오스만/터키의 37개 지배지역을 능가하게 되었다. 영국은 스페인 무적함대에 대승한 이래 77년 만인 1665년에 지배지역을 50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49개 지역을 지배했던 스페인을 추월했다. 비로소 영국이 세계 최고의 지배력을 갖게 된 것이다.

이 시기 총 지배 연수는 스페인이 8,473년으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오스만/터키가 6,529년, 포르투갈이 5,298년으로 뒤를 이었다([표 2]). 영국은

4,910년으로 이 시대 중반 이후에 절대적인 지배력을 갖게 된 당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영국보다 적은 4,680년, 오스트리아-헝가리는 4,387년이었다. 이 시대 프랑스의 지배 연수는 1,789년에 불과하여 다른 종주국에 비해 지배력이 약했다. 다만 프랑스가 이 시기에 대규모 영토인 퀘벡(Quebec)을 지배(1608-1759)하기 시작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항해 기술의 발달로 신대륙을 발견하여 대항해 시대가 펼쳐진 약 2세기에 걸쳐 스페인이 압도적인 지배력을 발휘하였다. 오스만/터키, 포르투갈, 영국, 오스트리아-헝가리도 지배력을 확대하여 균용할거의 형태를 이루었다. 이 시기의 후반기에 영국은 스페인의 무적함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계기로 최고의 지배력을 발휘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 4.3. 아메리카에서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1690-1918

이 시기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수 있다([표 2], IPC-DB). 전반기는 대항해 시대 총 지배지역이 321개 지역으로 최고조에 달했던 1689년의 다음 해인 1690년(319지역)부터 정체가 종료되는 1831년(297지역)까지이다. 후반기는 초유의 지배지역 확대증가율의 기간이었던 1832년(298지역)부터 1918년(448지역)까지이다. Fieldhouse (1967)는 종주국들이 아메리카에서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지배지역을 확대한 기점을 나폴레옹이 퇴위했던 1815년으로 삼고 있으나,<sup>10)</sup> 본고는 지배지역수의 증감에 기준하여 그 기점을 1832년으로 삼고 있다.

전반기(1690-1831)는 대부분의 종주국이 지배지역을 확대하지 못하는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영국만이 지속적으로 지배지역을 확대했다([그림 3]). 물론 오스트리아-헝가리가 18세기 초반에 일시적으로 지

10) Fieldhouse, D. K. *The Colonial Empires: A Comparative Survey from the Eighteenth Century*, New York: Delacorte Press, 1967.

배지역을 확대했고, 프랑스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기까지 나폴레옹에 의해 지배지역을 급격하게 확대한 뒤에 급감하는 현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690-1831 기간동안 영국의 지배 연수는 9,732년으로 다른 중주국과 비교하여 월등히 많았다([표 2]). 스페인의 지배 연수는 6,083년으로 영국에 역전 당했지만 이 시기까지의 지배력은 크게 감소되지 않았다. 또한, 오스만/터키가 5,290년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프랑스가 4,743년으로 선두주자들을 추격하기 시작하였다.

후반기(1832-1918)에는 다른 중주국들이 정제 또는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만이 지배지역을 초유의 속도로 확대시키고 있었다([그림 3]). 영국은 이 시대 지배지역 수의 최저점인 1783년의 57개 지역에서 캐나다의 빅토리아(Victoria)(1839)와 홍콩(1841)을 지배지역으로 추가 하는 등 새로운 지역을 추가하여 최고점인 1918년의 146개 지역으로 급격하게 지배지역을 확대했다(IPC-DB). 프랑스 또한 이 시대 지배지역 수를 최저점인 1838년의 28개 지역에서 최고점인 1918년의 82개 지역으로 증가시켜 증가율로는 영국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 결과 이 시기의 지배 연수는 영국이 10,797년으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게 되었고, 프랑스가 4,176년으로 영국을 추격하게 되었다([표 2]). 오스트리아-헝가리가 2,785년, 오스만/터키가 2,495년, 스페인이 1,836년, 포르투갈이 1,205년으로 그 뒤를 이었고, 이탈리아는 302년으로 다른 중주국과 비교하여 중주국의 지위를 급격하게 상실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중주국 중에서 선두주자가 아니었던 영국은 대항해 시대를 거치면서 두각을 나타냈다. 영국은 이후 최대의 지배지역이었던 북미 지역을 상실한 뒤에도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진출하여 사상초유의 증가율로 지배지역을 확대하여 독보적인 중주국의 지위를 확보했다. 한편 프랑스는 나폴레옹에 의해 지배지역을 급격히 증가시켰다가 급감했다. 프랑스는 이후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진출하여 영국에 버금가는 증가율로 지배지역을 확대하여 중주국 제2위의 지위를 확보했다.



## 5. 탈식민의 시대

### 5.1. 탈식민: 1919-1992

제1차 대전 이후 총 지배지역 수가 최고점으로 복귀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그림 1]). 제1차 대전 이후에 탈식민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제2차 대전기에 총 지배지역 수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최고점인 1918년(448지역)의 수준으로 복귀하지는 않았다(IPC-DB). 탈 식민의 시대는 지배지역의 수가 급감하였다가 급증했던 제1차 대전 후부터 제2차 대전 종전 직전까지의 시기(1919-1944)인 전반기와 제2차 대전 종전 후부터 소련붕괴까지의 시기(1945-1992)인 후반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차 대전 후 각 종주국의 지배지역 수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IPC-DB). 오스트리아-헝가리는 34개 지배지역(1918)에서 9개 지역(1919)으로 1년 만에 급감했고, 독일은 33개 지역(1913)에서 15개 지역(1919)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오스만/터키는 36개 지역(1875)을 정점으로 제1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는 14개 지역(1914)으로 이미 반수 이하로 감소했으며 제1차 대전이 종전되었을 때는 4개 지역(1919)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최대의 종주국인 영국은 제1차 대전 직후에 역사상 최대 지배지역인 148개 지역(1921)을 지배했다가 137개 지역(1937)으로 감소했다. 이후 증가하여 제2차 대전 직후에 147개 지역(1945)을 지배했다가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프랑스는 제1차 대전 직후에 84개 지역(1920)을 지배했다가 영국과는 달리 제2차 대전까지 감소하지 않았다. 이후 프랑스의 지배지역수는 제2차 대전 중에 감소했다가 제2차 대전 끝날 무렵 최대 지배지역인 87개 지역(1945)을 지배했다. 그 이후 계속 감소하였으나 영국의 지배지역 이하의 수치로 감소하지는 않았다. 러시아는 제1차 대전 중에 23개 지역(1915)을 지배했다가 제1차 대전 직후에는 10개 지역(1919)으로 감소했다. 그 이후 러시아의 지배지역수는 제2차 대전까지

증가하여 제2차 대전 직후에 최대 지배지역 31개 지역(1945)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서서히 감소하였다.

탈식민의 시대 전반기(1919-1944)의 프랑스 지배 연수는 2,451년으로, 영국의 지배 연수 3,700년의 66%에 해당된다([표 2]). 이전 시기(1832-1918)의 39%와 비교하면 근접했다고 말할 수 있다([표 2]). 이 시기에 다른 종주국보다 급격하게 지배력을 상실한 종주국은 오스만/터키(32년), 오스트리아-헝가리(234년)였다. 이들은 유럽의 각 지역을 주로 지배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탈식민의 시대 후반기(1945-1992) 프랑스의 지배 연수는 2,451년으로 영국의 지배 연수 3,719년의 66%로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여기에서 더욱 주목할 만한 사실은 탈식민의 시대에 러시아와 미국이 다른 종주국들과는 달리 종주국의 지위를 높여갔다는 것이다. 즉 러시아의 지배 연수(1,129년)와 미국의 지배 연수(1,260년)가 영국 지배 연수의 각각 30%, 34%에 해당되어 탈식민의 시대 전반기 영국 지배 연수의 각각 11%, 18%에 해당되었던 것에 비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IPC-DB). 종래 종주국의 지배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종주국들이 등장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5.2. 탈식민의 파급효과

탈식민의 파급효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첫째, 탈식민의 파급효과는 장기적인 사회적 변화의 지표인 인구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표 3]). 각 시기의 지배지역 증가율과 세계총인구증가율은 다음과 같다. 즉 1000-1500년에 0.51%와 0.12%, 1500-1700년에 0.49%와 0.19%, 1700-1800년에 0.03%와 0.34%, 1800-1900년에 0.30%와 0.53%, 1900-1950년에 -0.31%와 0.85%, 1950-2000년에 -1.24%와 1.73%이었다. 탈식민의 시대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논증해야 할 사항이 매우 많으나 수치만을 가지고 단순하게 비교하여보면, 지배지역의

[표 3] 지배지역과 지역별 인구의 변화

년	지배지역 (개, %)		인구(백만명, %)							
	절대수	증가율	세계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소련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1000	9		253							
1500	118	0.51	461	0.12	0.10	0.16	0.16	0.05	0.17	0.22
1700	316	0.49	680	0.19	0.28	0.09	0.17	0.28	-0.62	0.00
1800	325	0.03	954	0.34	0.37	-0.05	0.43	0.49	0.69	-0.40
1900	439	0.30	1,634	0.53	0.36	0.30	0.70	0.95	1.93	1.09
1950	374	-0.31	2,520	0.85	0.83	0.95	0.56	0.71	1.38	1.53
2000	198	-1.24	6,055	1.73	1.91	2.49	0.51	0.92	1.81	1.65

출전: Index of Possessions and Colonies; 송병진, 허은경 옮김(2009) 41.

비고: 증가율은 전년도부터 해당연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과 세계총인구증가율이 반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1800-1900년은 예외적이다. 즉 영국 산업혁명의 효과가 타 지역에 보급되었던 시기를 예외로 한다면 지배지역의 수가 감소하면 세계총인구가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 부자유의 제거가 발전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기에(Sen 1999), 지배지역의 감소가 정치적 부자유를 제거하여 경제발전의 기반을 마련했고 인구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탈식민의 파급효과는 일인당 GDP성장률의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표 4]). 각 시대의 전 세계 일인당 GDP성장률은 1000-1500년에 0.05%, 1500-1820년에 0.05%, 1820-1870년에 0.54%, 1870-1913년에 1.30%, 1913-1950년에 0.88%, 1950-1973년에 2.92%, 1973-2001년에 1.41%이었다. 산업혁명 효과가 파급되었던 시기(1820-1870)와 제1차 대전 이전(1870-1913)의 시장거래가 안정적이었던 시기에 일인당 GDP성장률이 대항해 시대 이전 및 대항해 시대보다 높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제2차 대전 후 안정을 찾게 되었던 시기(1950-1973)에는 제1차 대전 이전 안정기와 비교하여 일인당 GDP성장률이 두 배 이상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유럽의 경우 제1차 대전 이전의 안정기보다 제2차

[표 4] 지역별 일인당 연평균 GDP성장률(단위: %)

	세계	아시아	일본	아프리카	서유럽	동유럽	구소련	서구기타	남미
1000-1500	0.05	0.05	0.03	-0.01	0.13	0.04	0.04	0.00	0.01
1500-1820	0.05	0.00	0.09	0.00	0.14	0.10	0.10	0.34	0.16
1820-1870	0.54	-0.10	0.19	0.35	0.98	0.63	0.63	1.41	-0.03
1870-1913	1.30	0.42	1.48	0.57	1.33	1.39	1.06	1.81	1.82
1913-1950	0.88	-0.10	0.88	0.92	0.84	0.60	1.76	1.56	1.43
1950-1973	2.92	2.91	8.06	2.00	3.92	3.81	3.35	2.45	2.58
1973-2001	1.41	3.55	2.14	0.19	1.80	0.68	-0.96	1.84	0.91

출전: Maddison (2003), 263.

비고: 1. 아시아는 일본 제외. 2. 서구기타에는 미국 포함.

대전 후 안정기의 일인당 GDP성장률이 세 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의 경우에 절대적인 수치는 서유럽보다 낮지만 제1차 대전 이전의 안정기보다 제2차 대전 후 안정기의 일인당 GDP성장률이 일곱 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석유파동 이후의 시기에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의 일인당 GDP성장률이 절대적인 수치에서도 서유럽의 두 배였다. 그 원인으로 시장거래의 안정, 저렴한 기술의 보급 등을 지적할 수 있겠지만, 피지배지역이 대부분이었던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이 탈식민화되어 전면적으로 자유로운 개인행위가 가능한 사회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 5.3. 탈식민의 정체: 1993-2015

탈식민이 제2차 대전 후 급격하게 진행되다가 소련연방이 해체되어 총 지배지역수가 축소된 1992년 이후에는 정체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지배지역은 앞으로도 지배지역으로 머무를 가능성이 높은가? 본 데이터베이스에서 2015년 현재 총 잔존 지배지역은 198개 지역이고, 잔존 지배지역의 평균지배 연수는 277.0년이며, 총 지배 연수는 54,846년이다([표 5]). 총 탈 지배지역은 999개 지역이고, 평균지배 연수는 117.6년이며, 총 지

[표 5] 탈 지배지역과 잔존 지배지역의 지배 연수 비교(단위: 년)

	지역수	평균지배 연수	총 지배 연수
잔존지배지역 계	198	277.0	54,846
지배 연수상위 탈지배지역	198	346.0	68,504
탈지배지역 계	999	117.6	117,464

출전: Index of Possessions and Colonies.

비고: 지배 연수는 1000-2015의 수치.

배 연수는 117,464년이다. 잔존 지배지역의 평균지배 연수가 탈 지배지역의 평균지배 연수보다 길기 때문에 2015년 현재의 지배지역은 지배지역으로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탈 지배지역 중에 최단기 지배지역의 지배 연수는 203년이고, 최장기 지배지역은 영국에 의해 지배당한 아일랜드로 그 지배 연수가 751년이다([부표 1]). 잔존 지배지역 중에 최단기 지배지역의 지배 연수는 23년이지만 최장기 지배지역의 지배 연수는 966년이다([부표 2]). 잔존 지배지역 중의 최장기 지배 연수가 탈 지배지역의 최장기 지배 연수를 상회한다. 그렇지만 잔존 총 지배지역 198개 지역과 같은 수의 탈 지배지역의 지배 연수 상위부터 198개 지역을 비교해보면, 평균지배 연수가 346.0년이고 총 지배 연수는 68,504년이다. 즉 상위 탈지배지역의 평균지배 연수와 총 지배 연수는 잔존지배지역의 평균지배 연수와 총 지배 연수보다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상위 198개 지역을 한정하면, 현재 지배 당하고 있는 지역의 평균지배 연수가 이미 탈식민된 평균지배 연수보다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잔존 지배지역이 앞으로 그 상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낮다고만 평가하기 어렵다. 최근 스페인에 의해 852년간(1164-2015) 지배당해 왔던 카탈로니아(Catalonia)는 독립하려 하고 있다. 독립을 하게 된다면 독립지역 중 가장 오랫동안 지배당했던 아일랜드(Ireland)의 751년(1171-1921)이라는 기록을 갱신하게 되는 것이다.

## 6. 맺음말

본고는 약 천 년 동안의 지배지연수를 확정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여 지역 간 지배의 각 시대적 특징과 탈식민의 파급효과 그리고 잔존 지배역의 전망에 대해 고찰하였다.

대항해 이전 시대(1000-1487)에는 이탈리아가 최대의 중주국의 지위로 부상했으나 후반기에는 침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틈타 영국이 추격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는 북유럽도 주변지역에 대해 지배력을 강화해 나갔다. 대항해 시대 이전 시기의 중주국들은 인접지역의 지배를 유지확대하며 대항해 시대 이후의 급격한 지배지역의 확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대항해 시대(1488-1689)에는 항해기술의 발달로 오스만/터키, 오스트리아-헝가리,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이 균용할거의 형태를 이루어나가는 가운데 신대륙이 발견되어 지배지역 획득 경쟁이 격화되었다. 전반기에는 여전히 이탈리아가 주도했으나 영국이 추격의 속도를 높였고 북유럽은 주변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였다. 총지배지연수가 최고의 속도로 증가했던 시대(1690-1918)에는 영국이 북미지역을 상실했으나 아프리카 및 아시아의 지배지역을 확대하여 사상초유의 증가율로 독보적인 중주국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프랑스는 나폴레옹의 등장으로 지배지역을 확대했으나 이후 급감했다. 이후 영국에 버금가는 지배지역 획득 증가율로 제2위의 중주국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탈식민의 시대(1919-1992)에는 제1차 대전 이후 대부분의 중주국 지배지역이 감소했다가 제2차 대전기에 일시적으로 증가했다. 프랑스는 제2차 대전기에 지배지역이 감소했으나 감소율이 크지 않아 영국의 지배지역 수에 다가갔다. 제2차 대전 이후에 총 지배지역은 급격하게 감소했으며, 프랑스는 영국의 지배지역 수와 비슷하게 되었다.

탈식민의 파급효과는 제2차 대전 후 사상초유의 인구증가와 일인당

GDP 증가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배경으로 탈식민에 의해 피지배지역 주민들이 정치적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개인행위가 급격히 확대한 가능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탈식민 정체의 시대(1993-2015)를 거쳐 2015년 현재 잔존해 있는 지배지역은 오랜 기간 지배당했던 지역도 탈식민 했던 역사적 경험을 고려해보면 앞으로의 탈식민 가능성이 낮다고만 할 수 없다.

본고는 이상과 같이 지배 연수라는 척도를 사용하였기에 초장기적 관점에서 이제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대항해 이전과 이후의 시기를 비교할 수 있었고, 식민시대와 탈식민시대를 비교할 수 있었다. 본고의 결론은 첫째, 초장기적 관점에서 식민주의의 역사를 시기별로 비교하면 지배 연수와 인구 및 GDP는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둘째, 피지배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생활수준의 전환점은 산업혁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않는 제2차 대전 이후라는 것이다.

[부표 1] 탈지배지역(지배 연수 상위)

순위	지배연수	지배지역	종주국
1	751	Ireland (1171-1921)	England/United Kingdom(+ Scotland)
2	685	Zara/Zadar (1115-1154,1160-1183,1204-1797, 1918-1944)	Italy
3	664	Holstein (1201-1865)	Denmark
4	650	Halland (800-1645)	Denmark
5	649	Carniola (Krain/Slovenia) (1270-1918)	Austria-Hungary
6	632	Scania (800-1332, 1360-1653)	Denmark
7	629	Aland Islands (c.1180-1809, 1918)	Sweden
8	628	Finland (c.1180-1808)	Sweden
9	626	Oldenburg (1148-1773)	Denmark
10	607	Bohemia-Moravia (1939-1945)	Prussia Germany
11	568	Fricktal (1230-1797)	Austria-Hungary
12	560	Iceland (1380-1940/44)	Denmark
13	560	Cerigo (1205-1275, 1309-1797)	Italy
14	548	South Tyrol (1363-1805, 1814-1918)	Austria-Hungary
15	546	Rumelia (1363-1908)	Ottoman Empire/Turkey
16	543	Macedonia (Skopje) (1371-1913)	Ottoman Empire/Turkey
17	533	Trieste (1382-1809, 1813-1918)	Austria-Hungary
18	524	Kosovo(1389-1912)	Ottoman Empire/Turkey
19	514	Bulgaria (Vidin, Tuna, Rumelia) (1395-1908)	Ottoman Empire/Turkey
20	506	São Tomé and Principe (1470-1975)	Portugal
21	505	Vorderösterreich (Further Austria) (1301-1805)	Austria-Hungary
22	505	Cerigotto (1293-1797)	Italy
23	503	Albania (Shkoder,Valore,Uskib) (1410-1912)	Ottoman Empire/Turkey
24	475	Mozambique (Portugese East Africa) (1501-1975)	Portugal
25	467	Härjedalen (1178-1645)	Norway
26	467	Jamatland (1178-1645, 1677)	Norway
27	465	Crete (1204-1363, 1364-1669)	Italy
28	463	Norway (1000-1015, 1028-1035, 1375-1814)	Denmark
29	453	Newfoundland (1497-1949)	England/United Kingdom(+ Scotland)
30	452	Goa (Portuguese India) (1510-1961)	Portugal
31	450	Nice (1398-1792, 1814-1860)	Italy
32	450	Treviso (1339-1379, 1389-1797)	Italy
33	447	Macao (Macau) (1553-1999)	Portugal
34	446	Bosnia-Hercegovina (1463-1908)	Ottoman Empire/Turkey
35	445	Fiume (1471-1809, 1813-1918)	Austria-Hungary
36	438	Samos (1475-1912)	Ottoman Empire/Turkey
37	427	Diu (1535-1961)	Portugal
38	423	Istria (coast: 1374-1797)	Italy
39	420	Serbia (Belgrade, Nish, Kalemegdan)(1459-1878)	Ottoman Empire/Turkey
40	417	Cacheu (1588-1974)	Portugal
41	412	Corfu (1386-1797)	Italy
42	411	Ionian Islands (1386-1797)	Italy
43	403	Jordan (1516-1918)	Ottoman Empire/Turkey
44	403	Syria (Damascus, Aleppo) (1516-1918)	Ottoman Empire/Turkey
45	403	Damão (Daman) (1559-1961)	Portugal
46	402	Lebanon (Beirut, Acre, Sidon) (1516-1918)	Ottoman Empire/Turkey
47	402	Palestine (Jerusalem) (1516-1918)	Ottoman Empire/Turkey
48	401	Angola (Portuguese West Africa) (1575-1975)	Portugal
49	400	Hejaz (1517-1916)	Ottoman Empire/Turkey
50	395	Parga (1401-1452, 1454-1797)	Italy
51	395	Egypt (1517-1798,1801-1914)	Ottoman Empire/Turkey
52	394	Belluno, Bassano and Vicenza (1404-1797)	Italy
53	393	Bohemia (1526-1619, 1620-1918)	Austria-Hungary
54	393	Hungary (1526-1849, 1849-1918)	Austria-Hungary
55	393	Moravia (1526-1918)	Austria-Hungary
56	393	Slovakia (1526-1918)	Austria-Hungary
57	393	Verona and Padua (1405-1797)	Italy
58	391	Cyrenaica (1521-1911)	Ottoman Empire/Turkey
59	390	Rhodes (1522-1912)	Ottoman Empire/Turkey
60	390	Puerto Rico (1508-1898)	Spain(+ Aragon)
61	389	Croatia (1527-1809, 1813-1918)	Austria-Hungary
62	388	Dalmatia (1409-1797)	Italy
63	388	Cuba (1511-1899)	Spain(+ Aragon)
64	385	Orkney Islands (c.874-1380/1469)	Norway
65	385	Shetland Islands (c.874-1380/1468)	Norway



66	382	Sardinia (1326-1708)	Spain(+ Aragon)
67	377	Cattaro/Kotor (1420-1797)	Italy
68	373	Naxos (1207-1579)	Italy
69	370	Mania (1453-1822)	Ottoman Empire/Turkey
70	368	Transylvania (1551-1849, 1849-1918)	Austria-Hungary
71	368	Iraq (Baghdad, Basra, Mosul) (1534-1623, 1638-1918)	Ottoman Empire/Turkey
72	365	Kuwait (1534-1914)	Ottoman Empire/Turkey
73	363	Greece (Athens, Salonika, Thessaly) (1460-1822)	Ottoman Empire/Turkey
74	363	Montenegro (1516-1878)	Ottoman Empire/Turkey
75	360	Andros (1207-1566)	Italy
76	360	Tripolitania (Tripoli) (1551-1912)	Ottoman Empire/Turkey
77	357	Saint Christopher (Kitts) (1623-1666,1671-1983)	England/United Kingdom(+ Scotland)
78	356	Nevis (1628-1983)	England/United Kingdom(+ Scotland)
79	354	Barbuda (1628-1981)	England/United Kingdom(+ Scotland)
80	350	Antigua (1632-1981)	England/United Kingdom(+ Scotland)
81	345	Cyprus (1570-1914)	Ottoman Empire/Turkey
82	343	Dutch East Indies (Netherlands East Indies) (1602-1811, 1816-1949)	Netherlands
83	342	Barbados (1625-1966)	England/United Kingdom(+ Scotland)
84	340	Tarasop (1464-1803)	Austria-Hungary
85	340	Gold Coast (1621-1960)	England/United Kingdom(+ Scotland)
86	340	Zante (1485-1797)	Italy
87	337	Moldavia (1541-1877)	Ottoman Empire/Turkey
88	337	Walachia (1541-1877)	Russia/Soviet Union
89	334	Cape Verde (1642-1975)	Portugal
90	334	Portuguese Timor (East Timor) (1642-1975)	Spain(+ Aragon)
91	333	Mykonos (1252-1258,1390-1715)	Italy
92	333	Philippines (1565-1898)	Spain(+ Aragon)
93	329	Moluccas (1621-1949)	Ottoman Empire/Turkey
94	328	Masawa (Eritrea) (1557-1884)	Ottoman Empire/Turkey
95	327	East Prussia (1618-1945)	Prussia Germany
96	326	Santo Domingo (1492-1801,1808-1821,1861-1863)	Spain(+ Aragon)
97	325	Bessarabia (Moldova) (1488-1812)	Ottoman Empire/Turkey
98	323	Corone (1209-1500, 1605-1715)	Italy
99	323	Brazil (1500-1822)	Portugal
100	322	Modon (1209-1500, 1686-1715)	Italy
101	321	Panama (1501-1821)	Spain(+ Aragon)
102	314	The Bahamas (1648-1657, 1670-1781, 1781-1973)	England/United Kingdom(+ Scotland)
103	312	Tunis (1531-35, 1574-1881)	Ottoman Empire/Turkey
104	312	Wake Island (1586-1898)	Spain(+ Aragon)
105	310	Memel (1619-1920,1939-1945)	Prussia Germany
106	309	Sicily (1282-1285, 1409-1713)	Austria-Hungary
107	308	Madras (1640-1947)	England/United Kingdom(+ Scotland)
108	308	Cephalonia (1206-1214,1483-1485,1502-1797)	Italy
109	308	Crimea (1475-1783)	Ottoman Empire/Turkey
110	307	Senegal (1626-1758, 1779-1809,1817-1960)	France
111	304	Fernando Poo and Annobon (1474-1778)	Portugal
112	303	Yucatan (1519-1821)	Spain(+ Aragon)
113	302	Saint Thomas-Saint John's (1666-67, 1672-1917)	Denmark
114	301	Aden (1538-1839)	Ottoman Empire/Turkey
115	301	New Spain (Mexico) (1521-1821)	Spain(+ Aragon)
116	300	Nicaragua (1522-1821)	Spain(+ Aragon)
117	299	Trinidad (1498-1797)	England/United Kingdom(+ Scotland)
118	299	Guatemala (1523-1821)	Spain(+ Aragon)
119	299	New Granada (Colombia) (1520-1811, 1815-1821)	Spain(+ Aragon)
120	298	Gascony/Guyenne (1152-1449)	England/United Kingdom(+ Scotland)
121	298	Dutch Guiana (Suriname) (1665-1802, 1816-1975)	Netherlands
122	298	El Salvador (1524-1821)	Spain(+ Aragon)
123	294	Algiers (1536-1830)	Ottoman Empire/Turkey
124	294	Chiapas (1528-1821)	Spain(+ Aragon)
125	294	Honduras (1528-1821)	Spain(+ Aragon)
126	293	Fernando de Noronha (1504-1628, 1654-1736, 1737-1822)	Portugal
127	290	Leeward Islands (1671-1960)	England/United Kingdom(+ Scotland)
128	290	Azerbaijan (Baku) (1516-1806)	Ottoman Empire/Turkey
129	289	Quito (Ecuador) (1532-1820)	Spain(+ Aragon)
130	289	Venezuela (1528-1811,1812-1816)	Spain(+ Aragon)

386 인문논총 제75권 제1호 (2018.02.28)

131	288	Bissau (1687-1974)	Portugal
132	287	Peru (1535-1821)	Spain(+ Aragon)
133	286	Bombay (1662-1947)	England/United Kingdom(+ Scotland)
134	285	Gotland (1360-1645)	Denmark
135	283	Roussillon (1137-1185,1242-1276,1443-1642)	Spain(+ Aragon)
136	282	French India (1673-1954)	France
137	282	Anjediva (Angediva) (1505-06, 1682-1961)	Portugal
138	281	Rio de la Plata (Argentina) (1536-1816)	Spain(+ Aragon)
139	279	Paraguay (1535-1813)	Spain(+ Aragon)
140	278	Upper Peru (Bolivia) (1548-1809, 1809-1825)	Spain(+ Aragon)
141	275	Chile (1541-1810, 1814-1818)	Spain(+ Aragon)
142	274	Dutch Gold Coast (1598-1871)	Netherlands
143	272	Hebrides Islands (c.874-1266)	Norway
144	271	Samos (1204-1475, 1502-1558)	Italy
145	267	Bengal (1681-1947)	England/United Kingdom(+ Scotland)
146	267	Gibraltar (1309-1333, 1462-1704)	Spain(+ Aragon)
147	264	Mazagan (El Jadida) (1506-1769)	Portugal
148	263	Bahrain (1521-1783)	Persia/Iran
149	261	Estonia and Osel (1710-1918, 1940-1991)	Russia/Soviet Union
150	260	Latvia (1710-1917, 1940-1991)	Russia/Soviet Union
151	260	Chiloe (1567-1826)	Spain(+ Aragon)
152	259	Oran and Mazalquivir (1509-1708,1732-1792)	Spain(+ Aragon)
153	258	Gorée (1677-92, 1693-1758,1763-79, 1783-1800, 1817-1960)	France
154	257	Gambia (1661-1695,1713-1779,1816-1970)	England/United Kingdom(+ Scotland)
155	256	Tabarca (1451-1506, 1542-1741)	Italy
156	256	Luxembourg (1457-1713)	Spain(+ Aragon)
157	255	Euboea/Negroponte (1216-1470)	Italy
158	254	Costa Rica (1568-1821)	Spain(+ Aragon)
159	250	Corsica (c.1050-1077, 1285-1297, 1559-1768)	Italy
160	242	Naples (1492-1707, 1734-1759)	Spain(+ Aragon)
161	240	Crete (1669-1908)	Ottoman Empire/Turkey
162	237	Mosquito Coast (1658-1894)	England/United Kingdom(+ Scotland)
163	237	Florida (1565-1763, 1783-1821)	Spain(+ Aragon)
164	234	Syria (1291-1516,1832-1840)	Egypt
165	233	British Honduras (Delize) (1749-1901)	England/United Kingdom(+ Scotland)
166	233	Abkhazia (1578-1810)	Ottoman Empire/Turkey
167	231	Mariana Islands (Ladrones) (1668-1899)	Spain(+ Aragon)
168	230	Guam (1668-1898)	Spain(+ Aragon)
169	228	Santa Maura/Leukadia (1362-1479,1500,1689-1797)	Italy
170	227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1627-1636,1672-1673,1762-1779,1783-1979)	England/United Kingdom(+ Scotland)
171	227	New Mexico (1595-1821)	Spain(+ Aragon)
172	226	Outer Mongolia (1688-1911, 1920-1921)	China
173	226	Danish India (Tranquebar) (1620-1845)	Denmark
174	225	Palestine (1291-1516, 1832-1840)	Egypt
175	224	Tannu Tuva (1688-1911)	China
176	222	Chios (1345-1566)	Italy
177	220	Deshima (Dejima) (1641-1860)	Netherlands
178	220	Chaul (1521-1740)	Portugal
179	219	New France (1542-1760)	France
180	218	Dutch India (Coromandel Coast) (1608-1825)	Netherlands
181	216	Silesia (Breslau) (1526-1742)	Austria-Hungary
182	216	Ussari/Valdivostok (1644-1860)	China
183	216	Qandahar (1504-1709,1738-1747)	Persia/Iran
184	215	Sakhalin/Kuye (1644-1858)	China
185	213	Montpellier (1137-1349)	Spain(+ Aragon)
186	212	Aquitaine (1199-1294, 1303-1324,1360-1453)	England/United Kingdom(+ Scotland)
187	212	Calais (1347-1558)	England/United Kingdom(+ Scotland)
188	212	Dominica (1761-1778,1784-1978)	England/United Kingdom(+ Scotland)
189	212	Monaco (1174-1297,1301-1331,1357-1395,1402-1419)	Italy
190	211	Sainte-Marie de Madagascar (1750-1960)	France
191	211	Georgia (1578-1801)	Ottoman Empire/Turkey
192	210	Grenada (1609,1762-1779,1783-1974)	England/United Kingdom(+ Scotland)
193	210	Malta (1282-1492)	Spain(+ Aragon)
194	209	British Persian (Arabian) Gulf Residency (1763-1971)	England/United Kingdom(+ Scotland)
195	205	Baçaim (Bassein)(1535-1739)	Portugal
196	204	Salsette (1534-1737)	Portugal
197	204	Silesia (Upper & Lower) (1742-1945)	Prussia Germany
198	203	São Tomé de Meliapore (1523-1662, 1687-1749)	Portugal
계	68,504		

비고: 지배 연수는 1000-2015의 수치.

[부표 2] 잔존지배지역(전수)

순위	지배연수	지배지역	종주국
1	966	Schleswig (945-1865, 1920-)	Denmark
2	860	Niederösterreich (Lower Austria) (1156- )	Austria-Hungary
3	860	Oberösterreich (Upper Austria) (1156- )	Austria-Hungary
4	852	Catalonia (1164-)	Spain(+Aragon)
5	812	Alderney (1204-)	England/United Kingdom(+Scotland)
6	812	Brechou (1204-)	England/United Kingdom(+Scotland)
7	812	Herm (1204-)	England/United Kingdom(+Scotland)
8	812	Jethou (1204-)	England/United Kingdom(+Scotland)
9	812	Sark (1204-)	England/United Kingdom(+Scotland)
10	808	Guernsey (1204-1940, 1945-)	England/United Kingdom(+Scotland)
11	808	Jersey (1204-1940, 1945-)	England/United Kingdom(+Scotland)
12	750	Herbrides Islands (Western Isles) (1266-)	England/United Kingdom(+Scotland)
13	736	Gotland (995-1360, 1645-)	Sweden
14	734	Styria (1282 - )	Austria-Hungary
15	734	Wales (1282-)	England/United Kingdom(+Scotland)
16	721	Balearic Islands (1229-1276, 1343-)	Spain(+Aragon)
17	717	Isle of Man (1290-1313,1317-1328,1333-)	England/United Kingdom(+Scotland)
18	653	Vorarlberg (1363/1451/1765/1814 -)	Austria-Hungary
19	645	Tyrol (1363-1805, 1814 - )	Austria-Hungary
20	636	Faroe Islands (1380-)	Denmark
21	611	Canary Islands (1405/1479-)	Spain(+Aragon)
22	596	Madeira (1420-)	Portugal
23	584	Azores (1432-)	Portugal
24	519	Melilla (1497-)	Spain(+Aragon)
25	513	Görz (Gorizia) (1500-1809, 1813-)	Austria-Hungary
26	504	Navarre (1512-)	Spain(+Aragon)
27	502	Arabistan (1514-)	Persia/Iran
28	480	Alexandretta (Hatay) (1516-1918, 1939-)	Ottoman Empire/Turkey
29	476	Isla Alboran (1540-)	Spain(+Aragon)
30	467	Peñón de Velez de la Gomera (1508-1522, 1564-)	Spain(+Aragon)
31	463	Khorasan (1506-1755, 1803-)	Persia/Iran
32	460	Kärnten (Carinthia) (1553 -1809, 1813-)	Austria-Hungary
33	457	Peñón de Alhucemas (1559-)	Spain(+Aragon)
34	441	Gilan (1567-1723, 1732-1920, 1921-)	Persia/Iran
35	436	Gradisca (1511-1647, 1717- )	Austria-Hungary
36	435	Ceuta (1580-)	Spain(+Aragon)
37	427	Basse-Navarre (Bearn & Navarre) (1589-)	France
38	426	Orkney Islands (1468/1590-)	England/United Kingdom(+Scotland)
39	426	Shetland Islands (1469/1590-)	England/United Kingdom(+Scotland)
40	413	Scotland (1603-)	England/United Kingdom(+Scotland)
41	407	Bermuda (1609-)	England/United Kingdom(+Scotland)
42	391	Martinique (1625-)	France
43	387	Skane (Scania) (1332-1360,1658-)	Sweden
44	383	Montserrat (1632-1667,1668-1782,1784-)	England/United Kingdom(+Scotland)
45	382	Curaçao (1634-)	Netherlands
46	381	Guadeloupe (1635-1813,1814-)	France
47	381	Bonaire (1635-)	Netherlands
48	380	Aruba (1636-)	Netherlands
49	380	Sint Eustatius (1636-)	Netherlands
50	378	Pious Establishments of France in Rome (1635-1797, 1801-)	France
51	376	Saba (1640-)	Netherlands
52	374	Roussillon/Perpignan (1462-1493, 1642-)	France
53	371	Sint Maarten (1631-1633, 1648-)	Netherlands
54	371	Halland (1645-)	Sweden
55	371	Harjedalen (1645-)	Sweden
56	371	Jamatland (1563-1570, 1645-)	Sweden
57	369	Reunion (Bourbon/Bonaparte) (1642-1810, 1815-)	France
58	366	Manchuria (1636-1931, 1945-)	China
59	365	Anguilla (1650-1967, 1969-)	England/United Kingdom(+Scotland)
60	365	Saint Helena (1651-)	England/United Kingdom(+Scotland)
61	362	Pomerania (Hint: 1654-1945, Vor: 1654-)	Prussia Germany
62	348	Charloais (1477-1493, 1684-)	France
63	348	Isla del Perejil (1668-2002, 2002-)	Spain(+Aragon)
64	346	British Virgin Islands (1665-1666, 1672-)	England/United Kingdom(+Scotland)
65	346	Cayman Islands (1670-)	England/United Kingdom(+Scotland)

388 인문논총 제75권 제1호 (2018.02.28)

66	345	Orange (1660-65, 1673-97, 1702-)	France
67	340	Saint-Martin (1648-1672, 1679-1702, 1715-1759, 1763-1781, 1784-1794, 1795-1801, 1802-1810, 1816-)	France
68	338	Franche Comte (1678-)	France
69	334	Turks and Caicos (1678-1706, 1710-)	England/United Kingdom(+ Scotland)
70	334	Saint Pierre and Miquelon (1604-1713, 1763-1776, 1783-1793, 1802-1803, 1816-)	France
71	326	Greenland (1380-1410, 1721-)	Denmark
72	312	Sibraltar (1704-)	England/United Kingdom(+Scotland)
73	290	Avignon and Comtat Venaissin (1226-90, 1791-)	France
74	285	Alsace (1678-1870, 1918-1940,1944-)	France
75	283	Taiwan (1683-1895, 1945-1949, ROC, 1949-)	China
76	276	Saint-Barthélemy (1648-1785, 1878-)	France
77	259	Tibet (1720-1913, 1951-)	China
78	248	Montbellard (1534-35, 1676-1697, 1792-)	France
79	246	Corsica (1768-1794, 1796-)	France
80	245	EastTurkestan/Xinjiang (1759-1864,1877-)	China
81	241	South Georgia and the South Sandwich Islands (1775-)	England/United Kingdom(+ Scotland)
82	226	Pitcairn (1790-)	England/United Kingdom(+ Scotland)
83	221	Finale (1449-50, 1797-)	Italy
84	218	Mulhouse (1798-)	France
85	216	East Frisia (1744-1807, 1813-15, 1866-)	Prussia Germany
86	212	Crimea (1774/1783-1991, 2014-)	Russia/Soviet Union
87	211	Falkland Islands (1766-1774,1814-)	England/United Kingdom(+ Scotland)
88	211	West Falkland (1766-1774,1814-)	England/United Kingdom(+ Scotland)
89	206	Salzburg (1805-1810, 1816-)	Austria-Hungary
90	206	British Indian Ocean Territory (1810-)	England/United Kingdom(+ Scotland)
91	205	Crozet Islands (1772-1853, 1893-)	France
92	205	Kerguelen Islands (1772-1853, 1893-)	France
93	202	Savoy (1536-1559, 1792-1814, 1861-)	France
94	202	Tromelin Island (1814-)	France
95	201	Ascension (1815-)	England/United Kingdom(+ Scotland)
96	200	Inaccessible Island (1816-)	England/United Kingdom(+ Scotland)
97	200	Nightingale Island (1816-)	England/United Kingdom(+ Scotland)
98	200	Tristan da Cunha (1016-)	England/United Kingdom(+ Scotland)
99	200	Lorraine (1766-1870, 1918-1940,1944-)	France
100	197	British Antarctic Territory (1819-)	England/United Kingdom(+ Scotland)
101	185	Amsterdam & St-Paul Islands (1792-1853, 1893-)	France
102	178	Nice (to 1388, 1792-1814, 1860-)	France
103	175	Mayotte (1841-)	France
104	174	French Oceania (1842-)	France
105	174	French Polynesia (1842-)	France
106	174	Antipodes Islands (1842-)	New Zealand
107	174	Auckland Islands (1842-)	New Zealand
108	174	Bounty Islands (1842-)	New Zealand
109	174	Campbell Islands (1842-)	New Zealand
110	174	Chatham Islands (1842-)	New Zealand
111	172	Saarland (1815-1918, 1935-1945, 1957-)	Prussia Germany
112	169	Islas Chafarinas (1847-)	Spain(+ Aragon)
113	167	West Baluchistan (to 1747, 1849-)	Persia/Iran
114	167	Hohenzollern (1849-)	Prussia Germany
115	163	New Caledonia (1853-)	France
116	160	Bajo Nuevo Bank (1856-)	United States
117	160	Baker Island (1856-)	United States
118	160	Howland Island (1856-)	United States
119	160	Jarvis Island (1856-)	United States
120	160	Kingman Reef (1856-)	United States
121	160	Serranilla Bank (1856-)	United States
122	158	French Possessions on Saint Helena (1858-)	France
123	158	Johnston Atoll (1858-)	United States
124	158	Navassa Island (1858-)	United States
125	157	Amur (1858-1920, 1922-)	Russia/Soviet Union
126	155	Ussari/Valdivostok (1860-1920, 1922-)	Russia/Soviet Union
127	151	Lauenburg (1865-)	Prussia Germany
128	151	Schleswig-Holstein (S: 1865-, H: 1866-)	Prussia Germany
129	150	Venetia (1866-)	Italy
130	150	Frankfurt (1866-)	Prussia Germany

131	150	Hanover (1866-)	Prussia Germany
132	150	Hesse-Kassel (1866-)	Prussia Germany
133	150	Nassau (1866-)	Prussia Germany
134	145	Glorioso Islands (Iles Glorieuse) (1892-)	France
135	140	Sakhalin (N: 1875-1920, 1922-; S: 1875-1905, 1945-)	Russia/Soviet Union
136	137	Torres Strait Islands (1879-)	Australia
137	133	French Domain in the Holy Land (1856/73/74/86-)	France
138	129	Wallis and Futuna Islands (1887-)	France
139	129	Kermadec Islands (1887-)	New Zealand
140	129	Midway Island (1867-)	United States
141	128	Sirri Island (1887-1902, 1904-)	Persia/Iran
142	125	Clipperton Island (1858-1897, 1931-)	France
143	124	Volcano Islands (1891-1945, 1968-)	Japan
144	119	Bassas da India (1897-)	France
145	119	Europa Island (1897-)	France
146	119	Juan de Nova Island (1897-)	France
147	119	Heligoland (1890-1945, 1952-)	Prussia Germany
148	118	Guam (1898-)	United States
149	118	Palmyra Atoll (1898-)	United States
150	118	Puerto Rico (1898-)	United States
151	118	Wake Island (1898-)	United States
152	117	Bonin Islands (1876-1945, 1968-)	Japan
153	117	Okinawa and Ryukyu Islands (1872-1945, 1972-)	Japan
154	116	Lord Howe Island (1900-)	Australia
155	116	Cook Islands (1900-)	New Zealand
156	116	American Samoa (1900-)	United States
157	115	Niue (1901-)	New Zealand
158	114	Ducie Island (1902-)	England/United Kingdom(+ Scotland)
159	114	Henderson Island (1902-)	England/United Kingdom(+ Scotland)
160	114	Oeno Island (1902-)	England/United Kingdom(+ Scotland)
161	114	Guantanamo Bay (1899/1903-)	United States
162	105	Northern Territory (1911-)	Australia
163	102	Norfolk Island (1914-)	Australia
164	101	Jervis Bay Territory (1915-)	Australia
165	99	U.S. Virgin Islands (1917-)	United States
166	98	Trentino-Alto Adige (1918-)	Italy
167	96	Svalbard Island (1920-)	Norway
168	95	Northern Ireland (1921-)	England/United Kingdom(+ Scotland)
169	95	Jan Mayen Island (1921-)	Norway
170	94	Neutral Moresnet (1918-1940, 1944-)	Belgium
171	93	Eupen-Malmedy (1919-1940, 1944-)	Belgium
172	93	Ross Dependency (1923-)	New Zealand
173	92	French Southern and Antarctic Lands (1924-)	France
174	92	Kuril Islands (1854-1875, 1945-)	Russia/Soviet Union
175	91	Swains Island (1925-)	United States
176	90	Tokelau (1926-)	New Zealand
177	90	Franz Josef Land (1926 -)	Russia/Soviet Union
178	89	Hauteville House (Guernsey) (1927-)	France
179	89	Trieste (1918-1945, 1954-)	Italy
180	89	Bouvet Island (1927-)	Norway
181	87	Peter I Island (1929-)	Norway
182	85	Ashmore and Cartier Islands (1931-)	Australia
183	83	Australian Antarctic Territory (1933-)	Australia
184	78	Gough Island (1938-)	England/United Kingdom(+ Scotland)
185	78	Queen Maude Land (1938-)	Norway
186	72	Tannu Tuva (1944-)	Russia/Soviet Union
187	72	Northern Mariana Islands (1944-)	United States
188	71	East Prussia/Kaliningrad (1758-1762, 1945-)	Russia/Soviet Union
189	69	MacDonald and Heard Islands (1947-)	Australia
190	61	Cocos Islands (Keeling Islands) (1955-)	Australia
191	58	Christmas Island (1958-)	Australia
192	56	British Sovereign Base Areas (1960-)	England/United Kingdom(+ Scotland)
193	54	Aksai Chin (1962-)	China
194	47	Coral Sea Islands (1969-)	Australia
195	45	Tunb Islands (1971-)	Persia/Iran
196	44	Abu Musa Island (1971-)	Persia/Iran
197	42	Paracel Islands (1974-)	China
198	23	Baikonur (to 1991, 1994 -)	Russia/Soviet Union
계	54,846		

비고: 지배 연수는 1000-2015의 수치.

## 참고문헌

- WorldStatesmen.org, *Index of Possessions and Colonies* (<http://www.worldstatesmen.org/COLONIES.html>, 2016.1.31. 접속).
- Maddison, Angus, *The World Economy: Historical Statistics*, New York: OECD, 2003.
- 차명수(2014), 『기아와 기적의 기원: 한국경제사, 1700-2010』, 해남.
- Burbank, Jane and Frederick Cooper (2010), *Empires in World History: Power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이재만 옮김(2016), 『세계제국사: 고대 로마에서 G2시대까지 제국은 어떻게 세계를 상상해왔는가』, 책과함께).
- Clark, Gregory (2007), *A Farewell to Alms: A Brief Economic History of the World*,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이은주 옮김(2009), 『맬서스, 산업혁명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신세계』, 한스미디어).
- Etemad, Bouda (2007), *Possessing the World: Taking the Measurements of Colonisation from the Eighteenth to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Berghahn Books (Andrene Everson 영문번역(2000), 원저: Etemad, Bouda, *La possession du monde: Poids et mesures de la colonisation*, Brussels: Editions Complexes).
- Fieldhouse, D. K (1967). *The Colonial Empires: A Comparative Survey from the Eighteenth Century*, New York: Delacorte Press.
- Livi-Bacci, Massimo (2007), *A Concise History of World Population*, Malden, MA : Blackwell Pub (Carl Ipsen 영문번역(1989), 원저: Livi-Bacci, Massimo, *Storia minima della popolazione mondiale*, Torino: Loescher, 송병건, 허은경 옮김(2009), 『세계인구의 역사』, 해남).
- O'Rourke, Kevin H. and Jeffrey G. Williamson (1999), *Globalization and History: The Evolution of a Nineteenth-Century Atlantic Economy*, Cambridge, MA: The MIT Press.
- Said, Edward W. (1979), *Orientalism*, New York: Pantheon Books (박홍규 역

(2002),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Sen, Amartya (1999), *Development as Freedo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박우희 옮김(2001), 『자유로서의 발전』, 세종연구원).

内田じゅん・宣在源(2001), 「アメリカにおける西洋植民地研究：新しい視点の開拓」, 『日本植民地研究』, 제13호, 57-73.

원고 접수일: 2018년 1월 14일

심사 완료일: 2018년 2월 1일

게재 확정일: 2018년 2월 1일

ABSTRACT

---

A History of Colonialism:

Creating an ‘Index of Possessions and Colonies’ Database and Its Analysis, 1000-2015

Sun, Jae-Won\*

In this paper, we created a time series database of ‘Index of Possessions and Colonies’ for the number of areas ruled by colonizers from 1000 to 2015 to complement Etmad’s accomplishment which investigated the ratio of ruled areas and populations during the 18th to the 20th century. We, furthermore, undertook analysis with the aim of criticizing economic historical studies which have focused on living standards, such as Clark concerning the UK, and Cha concerning Korea.

During 1000-1487, the UK started its pursuit of Italy which was the strongest colonizer, and many colonizers competed with each other during the Rival Warlords Age, in other words the Exploration Age of 1488-1689. The UK became the most powerful colonizer in history during 1690-1918, after advancing into Africa and Asia even though she lost many colonies in the American Continent. During this period, France increased her ruled areas in Africa and Asia and became the second largest colonizer even though she had lost many colonies after Napoleon abdi-

---

\* Professor, Faculty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Pyeongtaek University



cated from empire. Most colonizers started to decrease their ruled areas after the First World War, although they increased their ruled areas for a brief period during the Second World War. After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the number of ruled area decreased dramatically until 1992.

We can recognize the ripple effect of decolonization through the population explosion and the rapid increasing rate of the GDP which took place after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One of the backgrounds of these ripple effects was that the ruled people had become liberated and participated in market activity freely without political restriction. In terms of the remaining ruled areas in 2015, we expect that it would be possible to decolonize in the future given the fact that areas that had a longer colonized history than the remaining ruled areas have also experienced decolonization.

